

오미아-한국제지, 경질탄산칼슘 합작투자

오미아코리아와 한국제지가 제지 충전제용 경질탄산칼슘 생산과 판매를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오미아코리아가 12월12일 밝혔다.

양사는 경질탄산칼슘 5만톤 생산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며 생산되는 경질탄산칼슘 대부분을 한국제지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오미아코리아가 판매할 계획이다.

한국제지는 제지 충전제로 쓰이는 경질탄산칼슘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품질향상과 원가절감을 동시에 달성하고 제지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미아코리아는 탄산칼슘 분야에서 세계적인 선도기업인 스위스 오미아그룹이 100% 투자기업이다.

<화학저널 2004/12/14>